

[종합·국제]

김경준 '大選용 입국' 수사 활기

검찰, 신당측 인사 소환 폭로 증용여부 조사

김경준씨 '기획입국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3일 김씨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재판 기록 등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이 미 법무부로부터 12일 넘겨 받은 3상자 분량의 자료는 2001년 12월 김씨가 입국신청서 자금 319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한 뒤 우리 정부가 2004년 1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송환된 때까지의 재판 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3년 5월 체포돼 한국인도 판결을 받았으나 자신에게 제기된 허다스 등 2건의 민사소송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인신보호 청원'을 했고 지난해 8월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

서를 제출해 미 연방법원에 의해 10월 한국행이 최종 결정됐다.

검찰은 김씨가 송환을 거부하다 갑자기 이를 번복한 배경과 미 당국이 김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한 과정, 미 검찰과 변호인이 범죄인 인도 재판 때 제출했던 각종 의견, 김씨를 체포·구금했던 미 연방 보안국의 김씨 조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던 3년6개월간의 모든 접견기록을 확보해 이면계약서 위조 경위나 공범 유무, 기획입국설 진위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미국에서 김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신모씨와, 그가 국내 교도소로 송환된 뒤 무료변론을 약속

하며 접촉했던 당시 대통령민주당 측 이모 변호사 등을 불러 국정원 개입설 및 폭로 증용 여부를 조사했다.

신씨는 검찰 및 특검 조사에서 "김씨가 먼저 한국에 들어가 이명박 대선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할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폭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지 국정원 직원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 변호사가 이를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씨를 접견한 것은 맞지만 폭로를 증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두 사람 진술의 진위를 가리고 있다.

한편, 신씨는 14일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홍콩 독감 비상 홍콩에 독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3일 한 젊은 엄마와 아기가 보호 마스크를 쓰고 홍콩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홍콩 교육보건부는 12일 저녁,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2주간 휴교하도록 명령했다. 홍콩에선 독감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3명의 어린이가 최근 잇따라 숨졌다. /연합뉴스

"본선서 내가 유리"

오바마-힐러리 슈퍼대의원 표심 잡기 총력

접전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11월 본선에서 서로 자기가 유리하다면서 남은 경선지역 및 슈퍼대의원의 표심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와 힐러리는 지금까지의 경선 결과와 인기도를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과장하고 상대방이 거둔 성과를 과소평가하면서 누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적임자인지를 가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는 자신이 훨씬 많은 주의 경선에서 이겼고, 특히 과거 대선에서 힐러리를 누른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힐러리는 캘리포니아와 오크하이오 등 유권자가 많은 주에서 승리한 것과 여성 및 노동자, 히스패닉의 지지가 강한 점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들이 서로의 성과를 폄하하면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대목은 대부분 힐러리가 승리한 '대형주'에 관한 평가이다.

힐러리는 대형주에서 자신의 승리가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에 대

해 자신이 더 강력한 경쟁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오바마는 전날 거둔 미시시피에서의 승리 등 훨씬 많은 주에서 이겼음을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 진영은 자신들이 미주리나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 대형 격전지에서 승리했음을 강조하면서 그의 승리가 그동안 대선에서 민주당 표밭이 아니었던 곳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200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승리했던 주의 경선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 15곳을 이긴 반면 힐러리는 9곳을 이기는데 그쳤다.

신문은 그러나 이들 공화당 표밭인 주에서 오바마의 승리가 그를 민주당 경선에서 대의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했지만 본선에서도 이들 지역의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힐러리의 자문역인 해럴드 아이크스는 "이들 대부분 주의 본선에서 1964년 이후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다"면서 오바마가 앞서 가고는 있지만 본선 경쟁력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서래마을 영아살해 佛여성 재판 회부

남편 장-루이 공모 혐의는 모두 기각

서울 서래마을의 영아 유기혐의로 구속 수감된 수사를 받아온 베로니크 쿠르조(40·여)가 살인 혐의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사는 12일(현지 시각) 열린 심리에서 쿠르조의 남편 장-루이의

공모 혐의는 모두 기각했으나 쿠르조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모두 3명의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르조는 수감된 지 2년여 만인 올해 후반기

쯤 살인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 쿠르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조는 2002년과 2003년 서울 서래마을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했으며 한국으로 건너가기 전인 1999년 프랑스 집에서 자신이 낳은 또 다른 영아 1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연합뉴스

"美 대통령 누가 돼도 한·미동맹 공고"

부시 前대통령 서울서 국제교류재단 조찬 강연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은 13일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지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아버지인 그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교류재단 주최 조찬강연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필요 없다는 등 후보들이 경선때 하는 말을 듣고 걱정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취임하면 다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한국만큼 강력한 동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동맹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미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 감사한 존재이며 나는 한국의 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고 소개한

뒤 "캠프 데이비드에 가면 네티어를 풀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시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로골프 최정수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휴스턴에 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고 "(대선 후보들이) 아들에 대해 많은 칭찬을 안해 TV를 보는 게 즐겁지 않다"거나 "여러분들이 아내를 너무 여왕처럼 대접 해줘서 제 자리로 돌아와줄 지 의문"이라는 등의 농담으로 좌중의 박수와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홍산그룹 류 진 회장의 초청으로 지난 11일 방한한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사흘 간의 방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연합뉴스

北 춘궁기 앞두고 전역서 쌀값 상승

춘궁기를 앞두고 이달 초 평북 신의주시의 쌀값이 지난달 말에 비해 20% 이상 인상되는 등 "북한 전역의 쌀값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3일 전했다.

이 단체는 소식지인 "오늘의 북한 소식" 제115호에서 "지난달 29일에만도 신의주 쌀값은 1kg에 (북한돈) 1천300원대였는데 이달 5일 현재 1천 600원대로 경증 뛰었고, 함흥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1천300~1천400원대에서 1천500~1천600원대로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을 380만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은 120만~140만에 달한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50세 미만 주민들은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는 '장사 금지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른 반발도 커져 왔다. /연합뉴스

스피처 뉴욕주지사 결국 낙마

성매매 파문으로 취임 1년 3개월만에

'월가의 보안관' 또는 '월가의 저승사자', '미스터 클린'으로 불렸던 미국의 엘리엇 스피처(48) 뉴욕주 지사가 성매매 파문으로 결국 공직생활을 접었다. 2006년 뉴욕주 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나서 기록적인 득표율로 당선돼 2007년 1월 주지사에 취임한 지 1년 3개월만이다.

스피처는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명성을 쌓은 뒤 주지사에까지 오르면서 잘나가는 차세대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2차례 연임한 검찰총장 시절에 윌스트리트의 부패와 싸우면서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으며 주지사 취임 이후에도 윤리개혁 등을 강조하며 주정부의 부패 추방을 주장해왔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금융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해 모리스 그린버그를 AIG 회장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리처드 스톨트베르겐은 회장 퇴임과 6천만달러 배상을 안기는 등 윌스트리트 거부와 최고경영진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당시 뉴욕의 고급 매춘조직을 운영한 16명을 체포하는 등 최소 2차례에 걸쳐 매춘조직 처벌에도 나섰다. 그는 타임지에 의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올해의 개혁가'로 꼽히는 등 깨끗한 이미지로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그의 성매매 행각은 지난주 맨해튼 연방검찰이 미국과 유럽의 부유층 고객을 상대로 한 번에 수천 달러씩 받는 고급 매춘 조직



미국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의 성매매 상대방으로 알려진 크리스틴. 그의 운영과 관련된 4명을 체포한 사건을 통해 스피처가 성매매 고각이었음이 확인된 것이 NYT 등 언론을 통해 10일 알려지면서 공개화됐다. 성매매 파문이 불거진 이후 그에 대한 사임 압력이 지속됐고, 스피처는 고문을 거듭한 끝에 12일 결국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부인 실다와의 사이에 3명의 딸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2008년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모집기간 : 3월 31일까지]

과정	전자정보Technician (다기능기술자)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훈련내용	컴퓨터초급 활용, 정보통신망 및 전자회로 실습, 광 cable 접속 및 측정, UTP cable 접속 및 측정, 정보통신 실무(1개월 현장실습)	PC운영체제 및 정비, 인터넷 검색 및 활용, O/A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HTML과 웹 에디터, 오피스 실무(1개월 현장실습)
자격요건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통신선로 기술사, 정보기기 운용 기술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기기 운용 기술사,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 실무사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 교무, 관세, 감사, 법원, 검찰, 교정, 보훈, 소방, 전산, 특목, 토목, 건축, 보건, 환경, 직업, 사회복지, 경찰, 소방, 농업, 산림, 어업, 수산업, 관광, 체육, 기타

9급이론반·주간 2개월 완성, 야간 2개월 완성, 개강 4월 1일 (주·야간모임), 7급강좌: 3월 7월 26일, 지방직 대비, 4월 21일,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무동"을 찾으십시오!

www.mdgoal.co.kr 222-4560

40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본원출신

개강 첫전도 시차반 현재 접수중

주택관리사 첫전도 개강: 현재 접수중 오전반 야간반

【총생 156,000여명중】 본원출신 송은영님 평균 **96.7**

227-8003 (9도청 앞 전입반) 971-0002 (박은영 대표) 971-0002 (박은영 대표)

2008년 **현대직업전문학교**
광주 동부경찰서 앞 224-4560

1. 만 15세이상~65세 미만 (주부, 귀족업자, 일반인, 고령보육직업자)
2. 자립관련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3. 2008년 2월 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야간대학교 및 방송대학교 재학생

1. 가사, 산업기사 방과후 특별지도
2. 교보네(5만원) 및 사비(8만원) 지급
3. 교재비, 실습비 전액국비지원
4. 훈련중 심리우수자 또는 동일직종 자격취득시 장학금 지급
5. 훈련후 채용안정금제 취업알선
6. 훈련후 동일직종 취업시 기간별 취업장려금 지급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공무원 합격대특강

개강 4월 1일

9급 문제풀이반 (1개월 완성) 전직종 첫진도

9급 이론출수반 (2개월 완성) 사전예약접수중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부구청장 (062) 252-0252